

한국사회 변혁운동 둘러싼 쟁점논의

「사회구성체론 III·IV」

80년 광주민중항쟁의 뼈저린 교훈으로부터 시작하였던 우리 변혁운동은 87년을 기점으로 한 대중투쟁의 폭발적인 고양을 거치면서 민중의 투쟁을 의식적으로 지도하고 총체적 변혁운동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민중운동세력의 지도력'의 부재가 당면한 최대의 장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민중운동의 양적·질적 발전에 조응하는 것,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와 결부되어 확산되고 있는 사상이론적 혼란을 극복하고 기간 변혁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변혁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한번쯤 살펴볼만한 책이 「한국사회구성체론」 III권과 IV권이다. 구성의 면에서는 먼저 제III권에서 토대 및 정치적 상부구조의 구조적 성격 등 주로 변혁운동의 구조적 측면을 둘러싼 논쟁(종속 및 한국자본주의의 전방 논쟁, 신식민지과시즘논쟁, 화이트칼라 논쟁을 중심으로 하는 변혁운동주체논쟁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IV권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좀더 넓혀 협의의 변혁론논쟁 및 변혁이념을 둘러싼 논쟁뿐만 아니라 변혁운동사연구상의 쟁점(사회주의개혁논쟁, 한국에서의 사민주의 적용과 관련한 논쟁, 변혁운동사의 연구의 시각 및 방법론과 관련한 논쟁,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을 둘러싼 쟁점, 변혁운동사의 각론적 쟁점으로 광주민중항쟁 평가를 둘러싼 논쟁)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현단계 사회구성체론쟁의 핵심적 쟁점사안의 하나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를 둘러싼 논쟁'으로 표현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의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자본주의의 종속과 개량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맑스주의 사상이론의 정책적 구체화의 요구라는 현실과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자본주의 발전 전망과 일치하는 이 사안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보편적 과정이 한국사회에 관철되는 특수성에 대한 규명 속에서 변혁의 필연성과 그 계급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전제되어진다.

이 책이 "논쟁의 가열화를 위한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편자들의 말처럼 "현단계 논쟁의 지평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입장의 근저에 있는 '공통의 사상이론적 자산'을 확인하고 공유"하며, 결국 자체적으로 도출하는 문제는 현실의 구체화 요

구에 부응하는 이론의 구체화임은 예정된 것인 듯하다.

이은영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가든 APT 3동 202호

「검은 노을」

페넬 방류사건이 터지면서 작년만큼 환경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컸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이 결성되고, 녹색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원전 추가건설 예정지에선 주민들의 집단 반대행동이 표출되고 그 외중에 빈번한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언제부터인가 전기 부족이라는 미명아래 안정성, 영구성은 사장된 채 오직 권력자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는 민중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 혹은 당사자가 아닌 나에게 핵의 위험성, 실제적인 위협은 항상 머리속에서만 있었고 실생활속에서는 거의 잊혀져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 최초의 장편 반핵소설, 제1회 실천문학상 수상작'이라는 긴 꼬리표를 달고 나에게 다가온 「검은노을」은 머리속에만 있던 핵에 대한 인식의 공허함을 생활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어릴때 꿈꾸던 비취색 바다를 찾아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을 찾은 작가의 눈에 들어온 건 고기가 떠나버린 죽은 바다와 피폐해진 마을, 그 뒤에서 반짝이는 반구형의 원자돔이었다.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매던 작가는 전라도의 성산리 핵 발전소를 근거로 잔소리가 아닌 큰소리, 살아있는 이야기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을 청년들의 갈등, 주민들의 고뇌를 그려 나간다. 이 소설에서 특이한 것은 이야기 전개 과정이 단편적이면서도 원자력 발전소와 민중의 삶을 구체화 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합시켜내고 있다는 점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보여지는 노동자의 삶과 관리자와의 투쟁이 광주민중항쟁, 계엄령, 80년대 초의 노동운동과 연관되어 서술되고 있다.

환경오염뿐 아니라 민족의 생사까지도 틀어쥐고 있는 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 심각성에 비해 일반 민중의 실감에 제대로 와닿지 않

고 있다. 민중의 삶의 실감에 바탕하는 문학이 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이 때문에 더욱 커지는데 「검은 노을」은 이같은 문학적, 운동적 필요에 부응하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회체제이건 인간을 위해 존재가치가 주어지는 만큼 우리는 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제 진실로 핵과 평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남은혜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BD 기화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랑이란 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사랑이 인간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윤후명은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할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퍼부어대고 있다. 그의 대표작들을 뽑아 모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나남)은 이런 질문들로 가득차 있다.

그가 그려낸 현실은 하나같이 가난하며 무기력하고 고독하다. 유년을 기억하는 일은 괴로움이며,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나'로 지칭되는 주인공들은 사회의 톱니바퀴에 적절히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개인들이다. 그들은 탈출구로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지만 그 사랑은 황폐한 '누란의 사랑'이거나 '돈황의 사랑'인 것이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알함브라 궁전'까지도 그에겐 알 수 없는 쓸쓸함으로 다가온다.

「누란의 사랑」 「돈황의 사랑」 「새의 초상」 「섬」의 모든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사랑할 대상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서로를 감싸안은 활기에 차 있는 사랑이 아니다. '동화되거나 유착'되어서는 안되는 사랑, '언젠가는 헤어져 저대로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되 그것이 안되면 또한 평생도록 그렇게 동서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사랑이다.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은 단지 허구의 현실화를 통해 개념으로만 존재할 즐거움이다. 사랑과 이별에서 오는 고독은 철저히 개인 각자의 것으로 돌려진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문제로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며, 그는 어떻게든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사로잡힌 몸으

로서 자유롭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한순간 스쳐감으로써 더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외로움과 그리움을, 너무나 커져버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두 괴물을 붙안고 오늘도 먼길을 가고 있다"고 작가서문에서 밝힌다. 운명적으로 그의 앞에 부과된 외로움, 그리움과의 정면대결인 것이다. '영원히 다시 돌는 외로움의 肝'과 '영원히 다시 굴러떨어지는 괴로움의 바퀴'가 그의 싸움의 실제 대상이다. 그 싸움의 방법은 사랑이지만 시지프스의 돌처럼 끝을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름답다.

그가 겪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이별의 쓸쓸함을 읽으며 독자들은 스스로의 울림으로 부딪혀 들려오는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겪어보았을 그런 사랑을 윤후명은 마치 친구에게 닮아있듯 잔잔히, 솔직하고 담담한 투로 말한다. 그때 그와 이야기를 듣는 친구 사이에는 한잔의 술이 놓여 있어도 좋으리라. 그의 말은 두서가 없어 횡설수설하는 듯하며, 다음에 어떤 기억이 튀어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독자들은 그가 들려주는 대로 그의 추억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신이 어느 틈엔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해경

충북 청주시 모충동 248-12

「생각굴리기」

어린이를 위한 읽을거리가 변변치 않다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민학교 저학년용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책을 찾기는 더욱 힘든 것 같다. 더욱이 어떤 일관된 교육철학이 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의 선생님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찾이란 더욱 쉽지 않다.

이러한 욕구사항들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묘한 이름의 책이 하나 눈에 띈다. 「생각굴리기」(황경식 옮김, 철학과학실사)는 미국 어린이철학개발원이 펴낸 7권의 철학 동화 및 철학 소설 중 하나인 'Elfie'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 번역한 책이다. 미국 어린이철학개발원은 철학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이 책들을 만들어냈는데 'Elfie'는 그 중 첫번째 단계의 교재이다.

교재로서 만든 책이니만큼 모든 내용이 의도적으로 짜여져 있다. 구석구석마다 함축된 철학적 내용이 있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실마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어렵거나 건조하게 이야기가 짜여진 것은 아니다. 국민학생인 주인공 애라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이 읽기에 무난하다. 유사한 경험들을 하면서 어른들이 미처 생각치 못한 것들을 주인공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굴리기」는 부모가 약간의 지도-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 있는 읽을거리이다. 오히려 대화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책이다. 원래의 철학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을 위해서 짜여져 있는데다 상당한 교육철학까지 표방하고 있어서 그 틀은 무척이나 견고하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하기에서부터 창의력과 상상력까지, 더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삶을 위한 만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습득하는 것까지를 프로그램의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목표들이 간단간단한 이야기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 일견 놀랍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꽤나 고무적이다. 외국에서 진행되었고 우리는 아직 그 부산물을 얻어다 쓰는 정도에 머문다는 사실이 씩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만한 시리즈물이 이미 번역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될 것이므로 그 전망은 매우 밝다.

군데군데 번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읽기를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위해 기획된 책이라는 산뜻함이 이런 아쉬움을 쉽게 덮어준다.

안천우

강원도 청원군 갈말읍 문해 1리 2반

「양들의 침묵」

나는 최근 두권의 추리소설을 흥미있게 읽었다. 너무나 잘알려진 베스트셀러이며 영화화되어 크게 히트한 책들이었다.

혈연관계가 있는 이 두책은 토머스 해리스라는 미국작가의 작품이다. 등장인물로는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소름끼치는 살인자 한니발 렉터박사와 FBI수사관인 잭 크로포드가 두책

의 중심인물로 나오고 구성이나 접근방식이 비슷하다. 다만 「레드 드래건」에서는 윌 그레이엄, 「양들의 침묵」에서는 클라리스 스타알링이 추리에 의한 사건해결의 주역으로 나오고 있다.

이 책들은 끔찍한 사건-변태성욕자에 의한 연쇄살인-을 소재로 다루면서 수많은 전문적 지식과 수사방법, 예컨대 법의학, 이상심리분석, 곤충학 등을 동원하고 있다. 사건의 기상천외함과 소름끼치는 잔인성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방식과 맞물리는 경우라 하겠다.

또한 경찰리포터로서 미국과 멕시코의 범죄 사건기사를 몸소 쓴 기자출신 작가의 작품이 어선지 현대를 살아가는 군상들에 대한 범죄심리에 대해 밀착된 접근을 보여준다.

예를들면 타고난 얼굴이 너무나 흉해 버림받고 자란 이빨요정이 단란한 가정들을 파괴하며 신화적인 용으로 탄생하려하는 시도(레드 드래건)나 성전환수술을 거부당한 후 젊은 여자들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옷(피부)을 만드는 버팔로 빌(양들의 침묵) 등은 보다 현대적인 유형의 범죄인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두 추리소설의 초점이 되는 인물은 한니발 렉터박사일 것이다. 그 자신 스스로 9명을 연쇄살인해 평생을 감옥에 갇히게 된 렉터는 감옥안에서도 임상정신분석학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 권위자이기도 하다. 그는 감옥안에서 연쇄사건의 범인과 교신하거나 새로운 범행 등을 알아내 그것을 이용해 탈출한다. 범죄를 분석하는 권위만큼 자신이 범죄를 즐기는 대표적인 인물인 셈이다.

이책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작가가 그려내는 범죄유형과 범죄심리이다. 잠재적인 범죄충동을 느끼며 사는 여러 인물들과 그들의 복잡한 내면세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유형화하기 힘든 현대의 인물들은 인간 제스스로의 타락과 문명의 이기 앞에 소외 등으로 끔찍하기 그지없는 비정함을 보여준다. 사람을 가죽으로 느낀다거나 자신의 허영을 좇아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이 소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식 범죄와 그 접근과정이 남의 애기만이 아님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박명기

서울시 구로구 시흥 본동 789-71



길고 먼 여정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은 서로 같습니다. 짐짓 목소리를 낮추어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먼길을 떠납니다. 때론 침묵하면서... 바닷물을 만드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책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만드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만드려는 바닷물만 보고 있다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책을 만드려는 바닷물만 보고 있다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한솔기획

한솔에서 하는 일

출판제작대행 · 광고기획 · 전자조판 · 원고뱅크 등

한솔이 사무실을 좀더 넓혔습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기획실장 / 디자이너 / 편집 · 교정 / 경 리(PC가능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전화 735-4997 / 722-3866 팩시 722-3866